

COMING OUT GUIDE



커밍아웃
가이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OMING OUT GUIDE

커밍아웃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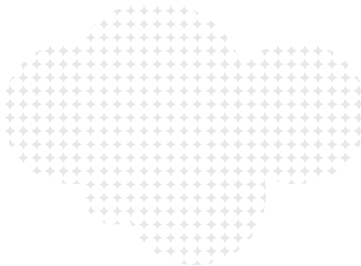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커밍아웃 가이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여는 말4

1. 커밍아웃을 생각하는 당신에게6

- (1) 커밍아웃, 이래서 좋아요6
- (2) 커밍아웃, 이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7

2. 커밍아웃을 하려는 당신에게10

- (1) 스텝 1 - 생각해 보기10
 - ①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합니다10
 - ② 커밍아웃 이후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12
- (2) 스텝 2 - 준비하기14
 - ① 실제 사례 탐구14
 - ② 떠보기 -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15
 - ③ 커밍아웃 연습16

[3] 스텝 3 - 계획 짜기18

- ① 친구에게 말할 때18
- ② 형제, 자매에게 말할 때20
- ③ 부모님에게 말할 때22
- ④ 직장에서 말할 때24

[4] 체크리스트25

3. 끝나지 않는 과정, 커밍아웃27

〈부록〉

- * 알아두어야 할 용어 풀이28
- * 참고 인터넷 사이트30
- * 참고 도서30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의 커밍아웃은 아직도 어려운 일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 사이의 관계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항상 고민합니다. 결국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겹게 이야기한 뒤 친구, 가족, 사회 등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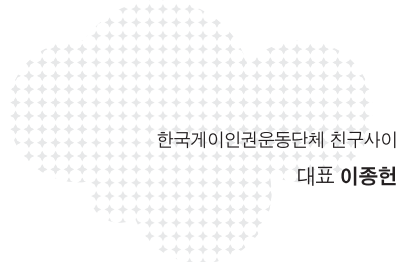
성적 소수자는 선택의 길에서 고민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을 위한 길인지, 또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중국에는 긴 고민 속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친구사이'로 들어오는 상담 내용이 예전에는 본인의 정체성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커밍아웃 이후 가족과의 갈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은 성적 소수자에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타인에게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스스로 당당하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또 커밍아웃은 다른 성적 소수자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소수자가 바로 눈앞에, 아주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없는 것, 또는 부정적으로 치부되던 동성애를 가시화하고 동성애가 이성애와 사랑의 대상이 다를 뿐인 보통의 감정이라는 것을 내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은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성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커밍아웃 가이드는 커밍아웃을 한번쯤 생각했던 분과 이를 실행하려고 하는 분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두 단계로 나누어 '커밍아웃을 생각하는 당신에게'와 '커밍아웃을 하려는 당신에게'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커밍아웃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위험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커밍아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 형제 자매, 부모님, 직장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커밍아웃 유의점 또는 커밍아웃할 때 필요한 점 등을 실었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커밍아웃할 때 필요한 성적 소수자 관련 지식이나 정보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미국의 'Human Rights Campaign'이 제작한 커밍아웃 프로젝트 자료집, 커밍아웃 홈페이지 (<http://comingout.narun.net/>) 등 다양한 국내외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게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커밍아웃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도전에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얘기하세요.



1. 커밍아웃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1] 커밍아웃, 이래서 좋아요.

지금 당신은 커밍아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어렴풋이, 또는 명확하게 커밍아웃이 자신에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밍아웃을 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안도감,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이성애자로서, 또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역할 압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성적 소수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 소수자와 성적 소수자의 삶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성적 소수자들이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합니다.

(2) 커밍아웃, 이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가 아주 낮은 존재는 아니라고 해도, 아직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혹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낯섦이 혐오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밍아웃은 다음과 같은 좋지 않은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충격을 받고 당신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심한 경우 상대방은 당신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 부당한 대우나 차별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 이러한 점들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커밍아웃 단계

일반적으로 커밍아웃을 나눌 때에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 단계들을 모두 경험하는 것도, 순서대로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1단계 : 자신을 인정하기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단계입니다. 긴 커밍아웃 여행의 첫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한 이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도 대체로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진정으로 수용하였을 때 성적 소수자로서 안정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적 소수자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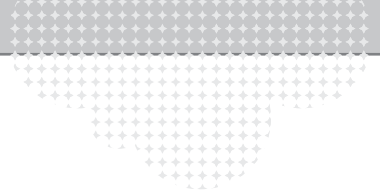
친한 친구, 자신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가족, 자기의 삶에 중요한 상대, 다른 성적 소수자 등을 시작으로 적절한 상대에게 준비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다른 성적 소수자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 역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공개적으로 살기

무지개 깃발과 같은 성적 소수자의 상징 또는 애인의 사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편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성적 소수자라는 것을 공개하는, 또는 감추지 않는 단계입니다. 즉 자신이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다양한 관계, 다양한 공간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하는 단계까지 아우릅니다.

커밍아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커밍아웃은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에 알리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커밍아웃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할지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되며 커밍아웃한 상대방에게 끌려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커밍아웃의 여정은 주인공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커밍아웃을 하려는 당신에게



[1] 스텝 1 - 생각해 보기

커밍아웃을 계획할 때에는 먼저 여러 가지를 미리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①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같은 조건에서 커밍아웃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커밍아웃은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커밍아웃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 :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지식 및 정보 보유 정도** : 커밍아웃 상황에서 적절하고 올바른 대답과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자신을 지지해 줄 인적 자원 및 지원 단체의 유무** : 지지자는 존재 자체로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함께하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성적 소수자 지인 유무** : 상대방이 성적 소수자를 알고 지내는 것은 커밍아웃을 쉽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 및 성적/성별 정체성** : 상황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이나 성적/성별 정체성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성역할에 따라 기대하는 바나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의 성적/성별 정체성** : 상대방의 성적/성별 정체성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항상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방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 상대방과의 관계가 친구인가 사업 파트너인가 가족인가에 따라, 커밍아웃은 적절하게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신뢰 정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수록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뢰라는 것이 신봉 또는 집착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무엇이든 "너를 믿는다"고 했던 부모님이 커밍아웃 이후 갑자기 구속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 **상대방의 소수자 이해도** : 다양한 인권 문제나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 커밍아웃이 더 수월합니다.

* 특히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는 위의 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 경제적 독립 여부 - 가족 상황 및 분위기
- 가족 내 자신의 위치 - 집안의 종교적 분위기 등

커밍아웃을 계획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 커밍아웃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자세
 - 상대방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및 지식
 - 커밍아웃이 상대방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행위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태도
-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② 커밍아웃 이후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커밍아웃한 이후 상대방의 반응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커밍아웃한 직후 상대방은 다양한 감정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 누구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반응이건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신이 친구의 비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후 상대방과 당신의 노력과 행위에 따라 차차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방향일 수도, 나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지지 - 이해 - 고마움 - 안도감 - 동질감 - 위로 - 걱정 - 동정
- 호기심 - 의심 - 두려움 - 불편함 - 혐오감 - 분노 - 치료 개입 욕구

상대방은 위와 같은 마음 중 동시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가 동성애자인 것은 존중하지만 앞으로 나와 신체 접촉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같이 말이죠.

*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는 여러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및 친밀도의 향상 - 동질감 또는 공감의 관계
- 관계의 단절 - 다양한 형태의 지지 철회

상대방과의 관계 변화에도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때로는 나쁜 수도 있고, 부정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다른 이에게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은 꼭 염두에 두세요.

- 개인마다 말하는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또 말하기의 방식과 내용이 다른 만큼 커밍아웃의 방법은 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커밍아웃의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따라 그 반응은 모두 다르고, 그러므로 상대방의 반응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필수입니다. 가족의 경우는 당신이 이성애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그런 모습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의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커밍아웃이 상대방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커밍아웃은 말하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커밍아웃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 이후 상대방과 나누게 될 이야기들 역시 커밍아웃의 일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 스스로가 보다 나은 관계의 형성이나 이해를 위해 이후에도 계속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기도 합니다. 커밍아웃한 상대와 길을 가다가 자연스럽게 "저 사람 괜찮다!"며(생물학적) 동성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커밍아웃을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까지 긴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밍아웃에도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2] 스텝 2 - 준비하기

자신의 커밍아웃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보았다면,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커밍아웃 전에 미리 해 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실제 사례 탐구

커밍아웃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보고 검토하면 여러 상황을 가정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커밍아웃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 조언 구하기

주위에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성적 소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자는 커밍아웃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상황과 비슷할수록 좋습니다. 또 한 사람보다는 몇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좋고, 여럿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언자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커밍아웃 과정에서 함께해 줄 수 있고 당신의 지지자, 보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사례 찾기

성적 소수자들의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커밍아웃의 실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부록에 수록된 홈페이지들을 참고하세요)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커밍아웃의 다양한 실제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당신의 커밍아웃을 계획하는 데 참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가 쉽지 않으니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떠보기 -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상 속에서 살짝 떠보면 나의 얘기를 얼마만큼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소수자와 관련한 영화, 드라마, 기사, 방송 프로그램을 보며

요즘 다양한 매체에서 성적 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공과 같은 특정 인물이나 그 매체에 나온 사건에 대한 반응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거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간접적으로 떠볼 수도 있습니다.

- 성적 소수자에 관한 책이나 물건을 두고

〈동성애의 역사〉와 같은 인문서나 퀴어문화축제 기간 동안 흔히 받을 수 있는 팸플릿, 〈후회하지 않아〉같은 퀴어 영화 DVD 등 아우팅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책이나 물건을 주위에 살짝 놓아두고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③ 커밍아웃 연습

무작정 커밍아웃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상상 연습

머릿속으로 커밍아웃의 장면을 자세하게 구성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말과 상대방이 보일 태도 등을 미리 짜 보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여러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 글로 써 보기

상상 연습을 통해 어느 정도 생각한 모습을 기초로 자신이 할 말을 구체적으로 대본처럼 써 보는 과정입니다. 생각만 해본 것과 글로 써 보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글을 써 보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실제 연습

실제로 말로 해 보는 연습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혹은 인형을 앞에 두고 하는 것도 좋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에게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성적 소수자인 것을 아는 친구에게 연습 상대를 부탁해 보는 것 역시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연습들을 통해 자신의 말이나 태도를 미리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
가이드





[3] 스텝 3 - 계획 짜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커밍아웃은 그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친구에게 말할 때

친구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은 다양한 커밍아웃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길에 친구를 보다 가까이 초대하는 것이며,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입니다.
- 장소는 차분하고 깊이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나치게 시끄럽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당신의 추억이 깊은 장소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성적 소수자가 아닐 경우 폐쇄된 곳에서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커밍아웃을 한다면 상대가 미묘한 공포심을 가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 사람에게만 할 것인지, 여러 명에게 동시에 할 것인지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에게 커밍아웃할 때는 한꺼번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고 자칫 얘기의 핵심이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야기를 할 때 "너 내 친구지?"라고 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때로 커밍아웃한 상대가 커밍아웃을 자신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너, 착각하면 안 돼! 너 내 스타일이 아니야!" 또는 "니도 눈이 있거든!"과 같은 말로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 직접 말하는 것이 꺼끄러울 경우 편지나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차분하게 정리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없고, 당신의 커밍아웃에 대해 따로 또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밍아웃과 동시에 상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커밍아웃한 이후 상대방이 당신을 아는 다른 친구에게 당신이 성적 소수자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고 싶다면 당신이 성적 소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아우팅으로서 심각한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커밍아웃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소수자와 관련한 다양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나누고, 관련된 시사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쿼어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행사에 함께할 것을 제안해 보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의 스티커나 상징물을 직장 책상이나 집에 놓아둠으로써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권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② 형제, 자매에게 말할 때

우리 사회에서 형제, 자매, 부모님은 당신이 성적 소수자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 직결되는 직접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이들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커밍아웃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제, 자매 중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커밍아웃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에게 커밍아웃 하는 과정에 많은 조언을 주고 좋은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처음 말을 떼기 어려울 경우 편지나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씩에게 따로 이야기할 것인지 형제, 자매끼리 (또는 그 중 일부가) 모인 장소에서 이야기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 자신의 성별/성적 정체성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신의 성별/성적 정체성을 직접 말하기보다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순화된 느낌을 줍니다. 가령 동성애자라면 “나 동성애자야”라는 말보다 “나 여자/남자를 좋아해”, “나 여자/남자가 좋아”, “나 여자/남자에게 더 끌려”와 같은 표현이 좋을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들은 당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폭력이나 내쫓김같은 다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뢰 관계가 두터운 친구들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생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커밍아웃 이후 당신 생활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어떤 다짐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감정 싸움을 가급적 피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의 본질적인 모습과 기본적인 자유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커밍아웃을 한 후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차후에 스스로 부모님께 말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부모님에게 말할 때

부모님에게 말할 때는 형제, 자매에게 말하는 방식에서 몇 가지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님에게는 헛김에 커밍아웃할 상황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커밍아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평소에 당신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부모님과 자주 정서적인 대화를 해보는 것도 커밍아웃할 때 도움이 됩니다. 커밍아웃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커밍아웃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소는 차분한 이야기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여행을 하면서 분위기를 형성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처음 말할 때에는 편지나 이메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친구나 형제, 자매에게 커밍아웃할 때에는 밝은 어투나 자신감 있는 자세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는 일단 신중한 태도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하고 불행하다는 태도나 과장된 감정 표현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반응은 분노부터 이미 짐작했다는 태도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 같이 강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까지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혹시라도 부모님이 당신들의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가진다면, 당신 자식이 성적 소수자인 것이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며 자신이 성적 소수자인 것을 불행하거나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은 당신이 이성애자로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며 사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모님은 그 기대가 무너져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슬퍼하고 당신이 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드리세요.

- 당신이 성적 소수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그런 모습 속에서 부모님은 당신이 성적 소수자여서 드는 걱정들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직장에서 말할 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커밍아웃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친한 동료에게, 또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여 자연스럽게 일하는 성적 소수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말할 때에는 다음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 직장 규모나 성격,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인간 관계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커밍아웃은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에서 말할 때에는 당신이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직장 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직장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켜도 좋습니다.
- 직장에서 말할 때에 직장 내에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둘씩 만들어 놓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 공간 등을 이용해 같은 직장 내의 성적 소수자 모임을 꾸리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 혹시라도 커밍아웃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직장 내의 상벌 규정, 단체 협약, 근로 계약서 등과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예상가능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그것이 단지 당신이 성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명백한 또는 정황적인 증거를 놓치지 말고 광범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I'm gay



[4] 체크 리스트

1.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꼼꼼히 정리하셨나요?
2. 커밍아웃을 위해 필요한 성적 소수자 관련 용어, 정보를 숙지하셨나요?
3. 커밍아웃하려고 하는 상대방에 맞게 계획을 세웠나요?
4. 본인의 마음 상태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나요?
5. 바로 지금이 커밍아웃할 가장 적절한 상황인가요?
6.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있나요?
7. 커밍아웃 이후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올 경우, 이에 대처할 계획은 세우셨나요?
8. 커밍아웃 이후의 관계맺음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셨나요?

얘기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3. 끝나지 않는 과정, 커밍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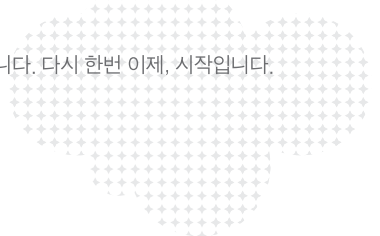
커밍아웃은 멈출 수 없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면 나를 숨겨야 한다는 마음, 내가 잘못된 것도 없으면서 왜인지 자꾸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 하나 둘에게 말하고 대화하게 됩니다.

이미 한번 이야기한 상대에 대해서도 커밍아웃은 계속됩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이전보다 잘 이해하고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커밍아웃을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과 이미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에서, 애인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에서, 다정하게 시선을 교환하는 찻집에서, 더블 침대를 쓸 것인지 싱글 침대를 쓸 것인지 묻는 호텔 카운터에서 (반)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커밍아웃은 단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일은 아닙니다. 커밍아웃을 통해 우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은 그저 자신을 드러내는 일만이 아니라 성적 소수자 존재 자체에 대한 커밍아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보다 쉽게 커밍아웃하도록 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다 자유롭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커밍아웃은 이렇게 연결되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 과정으로서 커밍아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시작입니다.



〈부록〉

* 알아두어야 할 용어 풀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이며 낭만적이고 성적인 끌림을 말합니다. 그 대상은 동성, 이성 또는 양성일 수 있습니다. 동성 또는 양성에 대한 성적 지향은 정신 질환이 아니며 치료를 통해 변화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신 의학과 및 심리학계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 개인이 정의하는 자신의 사회적 · 심리적 성별로, 이는 당사자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homosexual) - 동성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성에게 정서적, 낭만적, 성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성애자들이 자신과 다른 성별에게 이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 자신의 심리적 · 사회적 성별을 신체적 · 생물학적 성별과 것과 다르게 경험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게이(gay) - 동성에게 정서적, 낭만적, 성적으로 끌리는 남성 또는 여성을 뜻합니다. 게이는 원래 '명량한' '즐거움' 등의 뜻을 가진 말로 동성애자에 대해 밝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은 남녀 동성애자 모두에게 쓰이기는 하나, 대개는 남성 동성애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게이'라는 외래어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뜻합니다.

레즈비언(lesbian) - 정서적, 낭만적, 성적으로 여성에게 끌리는 여성을 뜻합니다.

양성애자(bisexual: 바이섹슈얼) -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정서적, 낭만적,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양성애자라고 해서 남녀에게 똑같이 끌리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성적 정체성이 시간에 걸쳐 발달하면서 양성애 각각 느끼는 끌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퀴어(queer) - 이성애자가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총칭입니다. 많은 성적 소수자에게 이 용어는 부정적 함의를 지닙니다. 원래 '괴짜의', '이상한'을 뜻하는 이 단어는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멸시적인 속어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한 본격적인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이어받아 1980년대에 대두한 급진적인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서 이 용어와 개념을 긍정적이며 전복적인 방식으로 재정의 하고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부정적인 함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많은 젊은 성적 소수자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반(二般/異般) - 이반은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로 성적 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성을 '일반 (一般)'적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하여 '이반(二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성적 소수자 인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동성애가 이성애와 다른 '차이'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자를 '異般'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밍아웃(coming out) - 'to come out of the closet(벽장 밖으로 나오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것으로 개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우팅(outing) - 대개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남이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있어서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남을 벽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비취볼 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을 폭로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동성애 혐오증/공포증(homophobia): 호모포비아) - 동성애에 애정과 성욕을 느끼며 끌리는 일에 대한 공포, 증오, 또는 불편함입니다.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양성애자 역시도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호모포비아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별도로 '양성에 혐오증/공포증(biphobia): 바이포비아)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에 대한 상당한 혐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포, 증오, 불편함인 '트랜스포비아(transphobia)' 역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참고 인터넷 사이트

www.outpridekorea.com 동성애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www.gendering.org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
www.buddy79.com 섹슈얼리티 웹진 eBUDDY
www.gaymunhak.com 젠더문학
www.comingout.narun.net 커밍아웃
www.chingnusa.net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www.lsgangdam.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
www.kscrc.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참고 도서

김비 지음. 『못 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오상, 2001
김진 지음. 『동성애의 배려 윤리적 고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노라 칼린 지음, 심인숙 옮김.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책갈피, 1995
노엘 헬리팩스 지음, 심인숙 옮김. 『동성애자 해방 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1995
다니엘 A. 헬미나와 지금, 김강일 옮김.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도서출판 해울, 2003
메리언 테인 바우어 외 12인, 베크 언더우드 그림, 조용주 옮김. 『엠 아이 블루?』, 낭기열라, 2005
바바라 해머 외 지음, 김정옥, 주진숙 옮김. 『호모 Punk 이반: 레즈비언, 게이, 퀴어 영화 비평의 이해』, 큰사람, 1999

에릭 마커스 지음, 연세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컴투게더 옮김. 『커밍아웃』 박영률 출판사, 2000

엘리자베트 바멩테 지음, 최석 옮김. 『남자의 여성성에 대한 편견의 역사』, 인마이로젯(주), 2004

윤가현 지음,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7

젠더문학닷컴 작가들 지음, 『레인보우 아이즈: 젠더 문학 소설집』, 도서출판 해울, 2005

조엘 로스차일드 지음, 공경희 옮김, 『영혼의 시그널』, 한문화, 2000

존 폴라핀토 지음, 이은선 옮김,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 여자로 길러진 남자 이야기』, 바다출판사, 2002

준 라이니쉬 등 지음, 이영식 옮김, 『최신 킨제이 리포트: 성, 그것이 알고 싶다』, 하서출판사, 1992

진싱 지음, 『신의 실수도 나의 꿈을 막지 못했다.』 중앙M&B, 2001

최안드레아 지음, 『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아미출판사, 1997

캐빈 제닝스 엮음, 김길남 옮김, 『역사 속의 성적 소수자』, 이연문화, 1999

콜린 윌슨, 수잔 타이번 지음, 정민 옮김,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역사: 사슬 끊기』, 연구사, 1998

클로디아 카드 지음, 강수영 옮김, 『레즈비언 선택』, 인간사랑, 2004

편집부 엮음, 『버디(Buddy)』 1~24호, 도서출판 해울, 1998~2003

폴 러셀 지음, 이현숙 옮김, 『게이100』 1,2권, 사회평론, 1996

플로랑스 타마뉴, 이상빈 옮김, 『동성애의 역사』, 이마고,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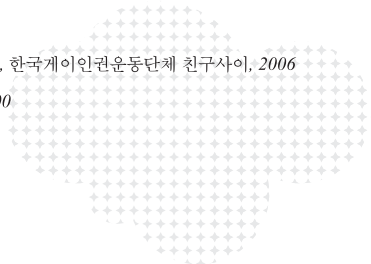
하리수 지음, 『이브가 된 아담』, 대산 출판사, 2001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편집팀,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한국인권재단 엮음,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인권총서9, 사람생각, 2000

한인섭 외 지음,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홍석천 지음, 『나는 아직도 금지된 사랑에 가슴 설렌다.』, J-pub, 2000



펴낸날 : 2007년 12월 1일

펴낸이 : 이종현

기획 · 구성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커밍아웃 프로젝트팀

조사 · 집필 : 박재경, 엔제이, 오기람, 이종현

해외자료 조사 · 번역 : 송유석

검토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운영위원회

외부 검토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대표

교정 : 이민철, 최준원

디자인 : Dmitri

펴낸곳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소 : 110-370)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번지 묘동빌딩 302호

전화 : 02-745-7942

팩스 : 02-744-7916

이메일 : chingu@chingusai.net

홈페이지 : <http://chingusai.net>



